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 영 선**

초 록

이 연구는 8명의 20~30대 북한이탈청년이 남한에서 인식하는 차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청년 8명을 심층 면담한 자료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한 차별 경험을 31개의 범주, 14개의 상위 범주, 3개의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3개의 영역은 차별을 경험하기 앞서 이들이 놓인 선행 경험, 차별의 경험과 대응, 그리고 차별의 결과이다. 차별의 선행 경험은 서로 상이한 남한과 북한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갖은 채 남북한의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차별은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청년을 구별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선을 긋고, 북한 출신의 낙인을 부여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경험되었으며, 북한이탈청년은 이에 대해 한 민족임을 강조하거나, 다름을 인정하거나, 남한에 동화되려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차별의 결과는 북한이탈청년이 이방인, 유목민, 경계인의 세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은 경계를 공고히 하고, 경계에 적응해 경계 밖에 머무는 삶을 사는 '이방인', 경계 안과 밖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향하고자 하는 종착지도 없이 떠도는 '유목민', 평범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계 안에 발을 내딛는 노력을 지속하는, 그리고 경계를 통해 남북을 잇는 가교로서의 가능성을 바라는 '경계인'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청년에게 정체성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시민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청년, 차별, 현상학적 연구

* 2017년 대한민국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jungysjungys@g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2017년 남북한의 지도자의 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1년 동안 남북 관계는 급변하였다. 2018년 8월 제21차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현실화되었고 및 아시안게임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는 등 남북의 예술과 체육 분야의 교류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타고 2018년 연내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연합뉴스, 2018.08.15.). 가까운 미래에 남한과 북한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간단히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언젠가 현실화될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시점에서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겠으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다. 통일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1,827명에 달하며, 2006년~2009년 매년 2천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한 이래 매해 입국자 수는 줄어들긴하였으나, 현재에도 매년 1천명 내외의 인원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등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2018a)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이하 북한이탈청년¹⁾)은 남한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은 남

1) 이 연구에서는 20~30대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김윤나, 2008; 정애리, 유순화, 2014; 송진영, 배민정, 2015)에서 10~20대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9세~24세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1항)’에 제시된 교육지원 대상이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인 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미달 등의 이유로 남한에 비해 다소 낮은 나이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을 10대~20대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사회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남한 사회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연령대를 분석하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통일부, 2018a)²⁾. 이들이 남한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청년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남한 주민과의 공존에서 비롯하여 미래 통일 한국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한 내 북한이탈청년의 정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적응과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윤나, 2008; 김기창, 2015; 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방인(송미영, 2012: 224)’, 더 나아가 남한의 ‘2등 국민(전영선, 2014: 107)’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청년의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차별’ 경험이라면, 이를 감소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인식하는 차별 경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입국하였을 때 어떤 시작점에서 출발하며, 적응과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차별을 경험하고, 대응하는지, 그리고 차별 경험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을 탐구한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적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차별 문제를 포함하고 있거나(여현철, 2015; 김윤나, 2008; 정애리, 유순화, 2014; 송진영, 배민경, 2015; 엄태완, 2016; 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차별의 과정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차별의 결과를 정리하여 유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조영아, 2015;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2) 통일부(2018a)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1,827명이고,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을 제외한 31,550명 중 20대가 9,023명, 30대가 9,125명으로 20~30대의 비율은 약 58%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청년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이나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일부로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김윤나, 2008; 정애리, 유순화, 2014; 송진영, 배미경, 2015; 여현철, 2015; 엄태완, 2016; 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김윤나(2008)와 정애리와 유순화(2014), 송진영과 배미경(2015)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경험하는 변화와 적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청소년의 관점에서 인식의 변화와 적응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변화와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여현철(2015)과 엄태완(2016), 한나 외(2017)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적응 과정에서 차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현철(2015)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 양식을 목표 지향적 적응과 과정 중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³⁾. 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이 남한 주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엄태완(2016)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이주 경험이 “불만족스런 상황에서도 일상적 삶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엄태완, 2016: 187)”이라고 정의하며, 이주 경험의 유형을 희망 연계-개척형, 무목표-유지형, 절망 지배-무기력형으로 구분하였다⁴⁾. 북한이탈주민은 생존을 위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후, 남한에서의 새로운 생존인 경제적인 ‘생존’을 위하여 유형 별로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적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에서 적응 양식과 이주 경험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차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한편, 한나 외(2017)의 연구는 북한이탈청년의 문화

3) 여현철(2015)의 연구에서, 목표 지향적 적응은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형을, 과정 중심적 적응은 남한 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유형을 의미한다.

4) 엄태완(2016)의 연구에서, 희망 연계-개척형은 이주 후의 삶에 희망을 품고 남한 사회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유형을, 무목표-유지형은 이주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지원에 의존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형을, 절망 지배-무기력형은 남한 사회에서 차별에 절망하면서 정착 의지를 잃고 현상황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적응 유형을 구분한 뒤, 유형별로 남한의 적응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차별을 느끼는지 분석하였다.⁵⁾ 연구 결과, 남한의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차별 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남한 사회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한 사회의 차별적 분위기의 감소가 북한이탈청년이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기창(2015), 정윤경, 김희진과 최지현(2015), 조영아(2015), 이민지, 장혜인과 전진용(2016)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에서 차별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김기창(2015)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적응 과정에서 편견과 무시를 겪으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 즉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한다(김기창, 2015: 210-221). 정윤경 외(201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이들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매개 요인으로 자활효능감⁶⁾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적응하기 어려우며, 차별의 경험은 자활효능감을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자활효능감은 다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민지, 장혜인과 전진용(2016)은 북한이탈여성이 인식한 차별이 남한 사회에 대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서 차별을 인지할 경우, 그 영향이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한 사회의 문화에 적응할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조영아(2015)는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무시하는 느낌, 울분이 쌓임 등 차별에 대한 중심 현상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모멸감을 견디고 부당함을 개선하며 나아가기’로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차별을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을 뿐, 차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한 것은

5) 한나 외(2017)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청년의 문화적응은 ‘(남한문화 행동이 적은) 부분 통합’, ‘(북한 문화 행동·가치가 보통인) 부분 분리’, ‘(남한문화 행동이 우세한) 동화의 세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6) 정윤경 외(2015)의 연구에서 자활효능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성공적 적응에 대한 기대와 의지, 믿음 등(정윤경 외, 2015: 162)”을 의미한다.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차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이해, 즉 차별 경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북한이탈청년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차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청년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감소시키고,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7년 통일부의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24명을 면담한 기록이다. 남한에서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한 차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연령이다. 청년의 시기를 넘어간 참여자의 과거 회상이 아닌 현재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20~30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두 번째 기준은 북한 사회의 경험 여부이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들려줄 전형적인 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출생을 남한에서 하거나 매우 어린 나이에 남한으로 이주한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남한 사회의 경험 여부이다. 참여자 자신의 차별 경험을 듣고자 6개월 이상 남한에서 생활한 자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연구참여자지는 총 8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8명의 연구참여자지는 여성 5명, 남성 3명으로 남한에 거주한 기간은 1년부터 9년까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북한을 이탈하고 태국 등지를 거쳐 남한으로 바로 입국하였다⁷⁾. 연구참여자들은 2017년 현재 대학에 진학하였거나(4명), 취업한 상태로(4명) 남한에서 약 1년~9년 동안 생활하고 있다.

7) 참여자6은 중국 생활 경험이 있어 북한이탈시점(2009년)과 남한이주시점(2015년)에 6년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남한의 차별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중국에 관한 면담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8)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북한이탈연령	남한거주기간	현재 직업
참여자1	남	27세	21세	6년	대학생
참여자2	여	23세	14세	8년	대학생
참여자3	여	27세	17세	9년	일용직
참여자4	여	27세	24세	2년	상용직
참여자5	여	33세	30세	3년	대학생
참여자6	여	27세	19세	2년	일용직
참여자7	남	28세	24세	4년	대학생
참여자8	남	25세	24세	1년	일용직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은 2017년 6~7월의 기간에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 번의 면담에는 대략 3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전 연구에 필수적인 질문의 항목을 작성하였으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응답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서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면담 자료는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의 본질을 포착해 텍스트로 표현(van Manen, 1994: 57)”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한 차별 경험의 본질적 의미인 만큼, 현상학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Moustakas(1994)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따랐다. Moustakas(1994)는 연구자의 판단 중지(epoche)를 강조하며, 연구자의 해석보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처음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Moustakas, 1994: 99-105).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남한 주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청년의 경험을 해석하기보다 남한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청년의 관점에서 차별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oustakas(1994)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Moustakas(1994)의 분석 방법에 따라 면담 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에서 이들이 남한

8) 표 1의 연령 및 북한이탈연령, 남한거주기간은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에서 경험한 차별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청년의 차별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판단중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면담 자료를 줄 단위와 문단 단위로 분석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괄호 안에 넣고, 그 외의 진술을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242개의 유의미한 의미 단위를 발견하였다. 넷째, 서로 유사한 의미 단위를 함께 묶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나가는 조직적 진술(textural description)을 통해 차별 경험의 범주를 구조화하였다. 다섯째, 상상적 변형(imaginative)을 통해 도출한 범주 구조가 연구참여자들의 차별 경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면담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재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단계를 거쳐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한 차별 경험의 본질을 31개의 범주, 14개의 상위 범주, 3개의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이탈청년이 남한에서 인식한 차별 경험의 본질 구조

범주	상위 범주	영역
선진 사회에 대한 기대감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혼합된 감정: 남한에 대한 호감	차별의 선행 경험
쉽지 않은 적응 방어적 태도	혼합된 감정: 북한에 대한 그리움	
법과 제도의 보호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교육의 중요성	차이의 인식: 북한과 다른 남한	
남한 주민과의 관계를 통한 소속감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관계의 안정감	정착을 위한 노력: 관계의 형성	
남한 주민과 맺은 관계의 피상성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관계의 무익함	정착을 위한 노력: 약한 관계성	
어투의 차이로 분류 북한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일반화	차별의 인식: 구별하기	차별의 경험
경계의 형성 원주민과 이주민	차별의 인식: 선 긋기	
‘북한 출신’의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 사라지지 않는 북한 출신의 그림자	차별의 인식: 낙인찍기	

범주	상위 범주	영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 북한에 대한 비난	차별의 인식: 비판하기	
서러움과 안타까움 불편함과 긴장감	차별에 대한 반응: 부정적 정서	
한민족임을 강조 상호 간 다름을 인정 남한 사회에 동화	차별에 대한 반응: 대응 전략	
경계를 공고히 함 사라지지 않는 경계에 적응	경계 밖에 머무는 삶: 이방인	차별의 결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 종착지의 부재	경계 없이 떠도는 삶: 유목민	
평범함에 대한 희망 경계 안에 발을 내딛음 경계를 잇는 가교로서의 가능성	경계 사이에 서성이는 삶: 경계인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질문을 수정해 가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북한이탈청년이 차별을 경험하면서 남한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괄호치기 하여 면담 자료에서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판단 중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과 총 3차례에 걸쳐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청년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검토하였다. 넷째, 분석 결과 도출된 차별의 본질 구조를 선행 연구 및 면담 자료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과정에의 윤리적 이슈

이 연구의 참여자인 북한이탈청년은 집단의 특성상 면담 과정에서 세심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의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

다. 첫째,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청년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타인이 면담에 관여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둘째,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이 불편하거나 대답이 곤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으며, 면담 종료 후라도 면담 내용을 연구에서 배제하기를 원하면 면담 자료를 폐기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셋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담을 녹음하였으나, 연구참여자가 면담 중 녹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코드화(참여자1, 참여자2 등)하여 기록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신상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이 장⁹⁾에서는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한 차별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분석의 결과, 이들의 차별 경험이 ‘차별의 선행 경험’, ‘차별의 경험’, 그리고 ‘차별의 결과’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의 구조를 상술하면서 차별 경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차별의 선행 경험

차별의 선행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차별을 인식하기 이전, 이들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 형성했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에 대한 혼합된 감정, 두 사회의 차이에 대한 인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 형성한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9) 분석에 인용된 북한이탈청년의 면담 내용은 경험의 생생한 전달을 위하여 맞춤법에 어긋나는 일부 표현 등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서술하였다.

1) 혼합된 감정: 남한에 대한 호감

(1) 선진 사회에 대한 기대감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남한의 생활을 시작한다. 일부 연구참여자지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발전된 남한의 모습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남한에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남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도 입국 직후 접한 남한의 모습이나 남한 주민들과 만남을 거치며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한 주민들의 예의 바르고 친절함 모습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이 선진국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전철에, 지하철에서도 보면 딱 눈이 마주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 이러는데, 그 사람들 웃으면서 뭐라 하고 막, 더 상냥해 보이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일수록 사람들이 상냥하구나. 또 그걸 알았어요. 되게 깍듯하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냥한 사람들도 많구나. 예의도 바르고. (참여자4)”

(2)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이 북한과 서로 닮아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일 때 편안함을 느꼈다. 이들은 아주 단순한 행위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남한에 처음 입국할 때, 김치가 나오는 식사를 제공받고, 역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느끼며 감격하였다. 북한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해 접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에서 보던 남한의 모습이 현실 세계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자신들이 잘 알고 있던 사회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영상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른 점을 못 느끼겠어요. 중국 와서도 우리 이모들도 와 신기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던 거 옹 여기 영상에서 보던 거 그대로군. 확인하는 느낌이라서. (참여자2)”

2) 혼합된 감정: 북한에 대한 그리움

(1) 쉽지 않은 적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에 답답함을, 그리고 조용하고 개인적인 남한의 주민들에게 거리감을 느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 화법의 차이로 인해 남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적응이 어려운 만큼,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과거 생활을 추억하며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빈곤한 사회지만, 모두가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개인은 사회에서 정해 놓은 길을 걸어갈 뿐 그 길을 벗어날 수 없기에 진로나 취업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다.

“(남한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네. 취업 걱정도 해야 하고. 걱정할 게 사실 많으니까 집도 나중에 사는 것도. 근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사실 없거든요. 사람들이 잘, 잘 못하는데 좀 약간 편한 것 같아요. (참여자1)”

(2) 방어적 태도

연구참여자들은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대해 지나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북한을 떠났다고 해서 삶의 터전이었던 북한에 대해 무척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생활한 시기가 가장 짧은 연구참여자 3명은 몸에 밴 북한의 습관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다.

“북쪽에서는. 꼭 김정은 원수님, 우리 원수님 딱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부르는 게 쪼끄말 때부터 세뇌됐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아직도 이따금 씩 그런 게 조금 있죠. (참여자8)”

3) 차이의 인식: 북한과 다른 남한

(1) 법과 제도의 보호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의 차이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의 법과 제도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 인식했고,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법과 제도의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우며, 주민들은 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북한에서는 뇌물 등 불법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거기(북한) 병원에 약도 없고 무상 치료잖아요, 국가법 자체가. 약도 없고 치료를 받으려면 누구 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건데. 뭐 아기 낳을려도 뭐 산부인과 의사한테 뇌물 바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2)”

(2)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이 북한보다 절대적인 경제 수준이 높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경제적 생활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북한보다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즉,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주변의 이웃들 모두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연구참여자는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발전한 사회이긴 하나, 자신은 북한에서보다 더 작은 집에 살며, 돈에 쫓겨 빈곤에 익숙해지는 등 개인적인 삶 자체는 악화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저 어린 친구들이 되게 거기 많이 살고 있고. 줌... 우리 집 14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참여자1)”

(3) 교육의 중요성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의 교육 환경이 남한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이야기했다. 첫째로 교육을 받을 기회에 차이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공부하는 학생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 학습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둘째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 내용의 차이이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남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경제나 법 등 사회생활에 관련된 학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남한에서 필요한 학습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진짜 솔직히 abcd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문장을 만드는 걸 알려주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솔직히 abcd 밖에 모르는 상황 이니까 어떻게 좀 더 다른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없대요. 학원은 제일 초급이 이거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학원 가도 이거부터다. abcd부터 배우는 데는 없다, 보통. 무슨 유치원 애들 배우는 데 가야되는데. 나는 그거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후략). (참여자4)”

4) 정착을 위한 노력: 관계의 형성

(1) 남한 주민과의 관계를 통한 소속감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담당 경찰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취업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담당자들과의 관계 유지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으면 연락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남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학 진학이나 교회 등 종교 단체 참여는 더욱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참여가 자연스럽게 남한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워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를 얻으면서 적응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게 학교나 종교 단체의 활동은 교육이나 종교 그 자체보다 단체에서

남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끼는 소속감의 의미가 컸다.

“(교회)는 재밌다고... 저는 그 소속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교회가 탈북민한테 주는 영향이 큰 거 같아요. (참여자7)”

(2)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관계의 안정감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와 같이 20~30대의 청년층의 경우, SNS를 통해 또래의 북한이탈청년과 연락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찾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교류가 없었던 사이라고 해도 같은 고향 출신이라 하면 만남을 통해 기쁨을 느꼈다. 남한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상호 간에 서로 의존하면서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가 편안한 이유로 신뢰감과 동질감을 들었다. 북한 출신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겉과 속이 일치해서 믿을 수 있고, 북한을 이탈했다는 동질감과 남한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출신 친구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전화도 하고 그냥 진짜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툭 던지면 서로 이해할, 잘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7)”

5) 정착을 위한 노력: 약한 관계성

(1) 남한 주민과 맺은 관계의 피상성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남한 사회에 소속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굳건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는 친절히 대해주는 남한 주민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는 관계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2명이 생일이면 못해도 내 실정에 아무리 힘들어도 10만씩은 주거든요. 주니까, 그 달이 바로 통장에 7원이 남은 달인데, 그 달에는 김밥 하나도 못 사먹겠더라고요. (참여자5)”

(2)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관계의 무익함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에서 안정감을 얻기는 하지만, 이 관계가 남한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이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므로 상호 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이 온 사람들은 도움을 누구도 줄 형편이 못 되죠. 다 2살인데 뭐 어떻게 도움을 줘요. 서로 이제 좋은 이제처럼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이 정도, 서로서로 돕는 거죠. (참여자5)”

2. 차별의 경험

차별의 경험은 차별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차별을 인식하는 과정을 구별하기, 선 긋기, 낙인찍기, 비판하기로 구조화하고, 이들이 차별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차별의 인식: 구별하기

(1) 어투의 차이로 분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북한식 어투, 즉 ‘북한 사투리’로 인해 구분된다고 인식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남한 주민들은 어디 출신인지 항상 질문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어투를 고치고 싶지만 잘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지 고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는 사람도 있었다.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 부분 어투를 고친 사람도 있었다. 이렇듯 북한식 어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는 연구참여자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어투로

인한 차별은 공통적인 경험이었다.

“지금도 저는 사투리를 10년 돼가는 데 써요. 많이 써요.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나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 다니던 회사에도 면접 볼 때 처음에는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티가 안 났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이랑 분위기가 좋아서 잠깐 막 수다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어? 사투리가 나온다고, 어디냐고 해서. (참여자3)”

(2) 북한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일반화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에서 북한에 대해 다소 편향된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경향이 있다고 평했다. 이들은 미디어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과 동시대에 북한에서 함께 살았음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은 자신이 알고 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 속 북한의 이야기가 사실이며, 다만 자신들이 알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남한 주민들이 이를 단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의 특성’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솔직히 이런 거(스마트폰) 자체도 너무 옛날부터 썼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냐고, 카드 있냐고 이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한다... 좋게 생각했다 나쁘게 생각했다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가는 게, 방송의 힘이라는 게 크잖아요. 제대로 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을. (참여자4)”

2) 차별의 인식: 선 긋기

(1) 경계의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과 남한 주민들 사이에 어떤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단순히 어투의 차이로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한 결과로 서로 다른 존재로 분류하고 경계를 형성했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어투만 듣고 어디

사람이나 묻는 말을 빈번하게 듣는다고 했다. 또 자신의 어투가 왜 저렇게 이상하냐며 지적당하기도 했고,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구경하러 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지적과 구경의 대상, 남한 주민과의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전교생이. 갑자기 첫날 가서 학교 교실도 어디야? 이리고 어리병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막 구경하러 오니까. 창문이고 계단이고 (중략) 막 밥 먹으러 갈 때도 애들이 ‘어 재 북한에서 왔대’, 이리고. 되게 이슈에.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슈의 대상이 되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2) 원주민과 이주민

경계를 형성한 결과, 한 연구참여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이방인, 남한 주민들은 원주민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주민들의 시선에 북한이 같은 민족, 같은 국가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남한 주민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

“애들이 북한을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 그냥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뿐.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조선족. 그 사람들이 와서 말투가 비슷하다. 그런 말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니까 뭐 인정하기 싫지만 어떻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참여자7)”

3) 차별의 인식: 낙인찍기

(1) ‘북한 출신’의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 앞에 ‘선’을 그은 다음, 경계 너머의 자신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징만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고 이야기했다. 북한 사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각자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데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북한 출신’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버린다. 남한에서 이들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식된다. 이는 동정이나 배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출신’에게는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정하거나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일종의 차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사람과 구분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꼈다.

“뭔가 되게, 다름의 대상과 동정의 눈빛과 그렇게 막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참여자2)”

(2) 사라지지 않는 북한 출신의 그림자

이와 같은 ‘북한 출신’의 특징은 연구참여자들의 생활 전반에서 사라지지 않고 꼬리표와 같이 붙어 다닌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점만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이들은 각자 다 다른 목표를 갖고, 다른 성격을 띠며, 다른 행동을 하지만 이들의 모든 행위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으로 설명되며, 개인이 아닌 북한 출신이라는 그림자가 이들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취업하는 데 가서 많이 애로 조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취업할 때 벌써 북한사람이다, 하면 그 편견이 세더라고요. 뭐든지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딱 보고, 이력서만 보고 사람을 안 좋다고 이력서를 보고…. (참여자6)”

4) 차별의 인식: 비판하기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출신이 ‘북한’임을 드러냈을 때 남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 때문에 한 연구참여자들은 어투로 구분되지 않는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했다.

“네, 억양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해도 사람들이 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근데 또 면접을 봐도 얘기…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술집이라든지 이런 다 해봤는데 아직 식당은 안 해봤어요. 근데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참여자1)”

(2) 북한에 대한 비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남한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자신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북한가 북한이 탈주민을 비난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주민들의 북한을 향한 비난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여기며, 차별로 인식하였다. 또한, 남한의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뿔이 난 도깨비’로 표현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연구참여자에게 비난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아직도 좀 북한 싫어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 있으면 무섭고, 사실. 노골적으로 또 북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자1)”

5) 차별에 의한 반응: 부정적 정서

(1) 서러움과 안타까움

연구참여자들에게 북한이라는 출신은 바꿀 수 없고 평생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이처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때로는 서러운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 왔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런 생각 들 때가 아주 적은데도 되게 생각 많이 들어요. 참 싫어요. (참여자3)”

(2) 불편함과 긴장감

서럽고 안타까운 감정만큼이나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은, 차별이 가져오는 불편

함과 긴장감이다. 이들에게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구분되고 차별되는 것에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일이다. 단순히 평범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상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투로 구분되고, 북한 출신을 지적당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긴장된 삶을 살아간다.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좀 저를 다르게 보거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막말했다는 게 좀... 그게 좀 그래서 좀 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6) 차별에 대한 반응: 대응 전략

(1) 한민족임을 강조

연구참여자들이 차별에 대응하는 첫 번째 전략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유구한 시간을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고,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의 역사가 훨씬 기므로 서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참여자는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과의 친분을 걱정하던 남한 주민들도 관계를 형성하고 만남을 반복하면 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었다며, 같은 민족인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차별에 대응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고향이나 출신과 같은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자신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내 나라’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태어난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못 사는 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한민족이었다. 갈라진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데 뭘 너네 잘나냐, 우리 잘사냐 이런 말 해서는 통일되기 힘들 거 같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사회를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혼자 뛰쳐나온 것뿐이고. 그래서 내 나라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5)”

(2) 상호 간 다름을 인정

두 번째 전략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시작점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남한 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구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그 결과 차별이 나타나는 현실 일단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살아온 환경이나 사고방식이 다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서툰 것은 당연하며, 남한 주민은 북한에 대한 극히 제한된 정보로 자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별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남한 주민의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을 인정 하기도 하였다.

“여기 실례로 남한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일할 때 현장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일할 때 남한 사람들 이렇게 다 막고 일해요. 북한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신경 난다고. 얼굴 다 타잖아요. 어쨌든 좀 미개하다고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싫어하겠죠. (참여자8)”

(3) 남한 사회에 동화

세 번째는 북한 출신의 흔적을 지우고 남한 사회에 녹아 들어가려는 전략이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실감하며, 차이를 극복한 사람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북한의 어투를 교정해야 한다고 느끼며, 남한 사회에 적합한 어투와 표정 등 북한에서의 모습을 지워야 하다고 여겼다.

“아직까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달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퇴치한 사람들이 좀 약간 빨리 발전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르다고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1)”

3. 차별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차별을 경험한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차별의 결과를 경계 밖에 머무는 삶인 이방인, 경계 없이 떠도는 삶인 유목민, 경계 사이에 서성이는 삶인 경계인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1) 경계 밖에 머무는 삶: 이방인

(1) 경계를 공고히 함

이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스스로 더 강화했다. 북한 출신이라는 낙인을 자기 자신에 부여하고, 남한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 주민의 눈에 비친 자신은 영원히 북한 주민이었다. 이들은 남한의 신분증이 있다고 해서, 남한의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도 남한에서 함께 살아가는 남한의 주민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어디 가서 말투를 내가 북한 말을 툭 하면 ‘북한 사람이에요?’ 이러지, ‘대한민국 사람이 왜 북한 말을 쓰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이죠. (참여자8)”

(2) 사라지지 않는 경계에 적응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그에 적응하여 살아갔다. 이들은 취업과 결혼 등 개인의 중요한 선택에서도 경계를 인정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기에 대답하기도 하지만, 출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 온 게 이게 죄인가? 배신자로 보이나? 왜 이렇게 보이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북한에서 어떤 중심에서 살다가 어디 시골 애가 왔다 하면은 좀 그럴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시골 애가 들어오면 ‘시골에서 왔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 여기도 지배하고, 아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 어머니한테도 아 여기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다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개도 자기 집 앞에서 짖는다고. 자기 땅이니까 좀 그런 거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참여자4)”

2) 경계 없이 떠도는 삶: 유목민

(1)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

연구참여자들은 민족성을 강조하거나, 남한과 북한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남한 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기 꺼리는 것은, 북한 이탈주민임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보다 자신도 자신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이라는 사회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해도 남한에서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들 고향 위주로 가잖아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끔 고향 어디야? 이런 1학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애들이 마산이라고, 응? 나도 마산인데 이려고. 같이 그런 걸 봤을 때 아 나는 영원한 이방인인 것인가 하고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2) 종착지의 부재

북한이탈청년이 경계 없이 떠도는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현재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종착지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남한에 머무를 것이라 확신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북한이탈청년은 남한에도 한국에도,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으며, 어디로도 향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보고 막 학교 가면 ‘너 왜 왔어?’ 이려고. ‘난 왜 왔지?’ 애들이 막 다른 반 애들이

와갔고 ‘너 북한에서 왔다매?’ 막 이러면서. ‘응 그래.’ ‘너 왜 왔어?’ ‘글쎄 나도 왜 왔을 까’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갔고 좀 그것도 좀 스트레스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2)”

3) 경계 사이에 서성이는 삶: 경계인

(1) 평범함에 대한 희망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남한에서 평범한 남한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 즉 ‘평범함’의 가치를 열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신을 감추기도 하였으나 이는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고정관념 없이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자신들을 평범한 보통의 남한 주민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동기) 학생들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크게 과제 할 때도 팀플할 때도 그렇고 눈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조금 사투리 좀 쓰는 오빠? 그 정도? 나이도 다 말 안 하고. 나이 말하면 애들이 기절하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참여자7)”

(2) 경계 안에 발을 내딛음

연구참여자들의 일부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반복하였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계 안에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을 알고 있는 남한 주민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표현, “대한민국 사람인데, 고향이 이북인 사람”을 언급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출신지가 아닌, 남한과 북한의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 속에 공존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냥 이제 태어나길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거는 뭐 태어난 고향이니까. 내 고향은 북한일 뿐이지, 내가 지금 사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죠. (참여자6)”

“북한 사람이라는 아니고. 북한 출신, 그냥 고향이 북한 출신. 네. 고향이 북한 출신 사람이긴 한데...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다 (참여자7)”

(3) 경계를 잇는 가교로서의 가능성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계 사이를 오가며 서성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성화되거나,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는 자신들과 같이 두 사회의 경험을 가진, 그리고 두 사회에서 원만하게 적응하여 살았던 존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이들 역시 통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통일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가족들과 재회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버리지 않았다.

“통일이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겠죠. 양쪽을 다 겪어 본 사람들.
(참여자5)”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알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또 나서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7)”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이 연구는 8명의 20~30대 북한이탈청년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이들이 인식한 차별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한 차별 경험의 본질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형성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자기 검열 체계’로 나타났다. 즉, ‘남한과 북한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갖은 채 남한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며 정착’하고자 하는 선행 경험과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를 실감하고 북한 출신이라는 낙인을 인식하며, 남한과 북한의 동일성을 강조하거나, 차이를 인정하거나, 남한에 동화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차별의 경험, 그리고 ‘경계 밖에 머물거나, 경계 없이 떠돌거나, 경계 사이에 서성이는 이방인, 유목민,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차별의 결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청년에게 차별은 차별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구별하고 선을 그으며, 선 밖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 출신이라는 낙인을 찍고,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들을 차별하였다고 인식했다.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이병수, 2014: 127-128),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청년 역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비판할 때, 이를 자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차별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와 다양한 대응 전략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하며 이들은 서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남한 주민과의 공존에 대해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이들이 차별에 대응하는 첫 번째 전략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공통점을 가진 한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단지 고향일 뿐이고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성의 강조를 통해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느끼는 차별은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주민이 자신을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기존의 연구(송미영, 2012; 이병수, 2014)¹⁰⁾를 고려할 때, 연구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극복하고 남한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남한과 북한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이로 인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남한 주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남한 주민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남한 주민과 교류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응한다는 한나 외(2017)의 연구에서처럼 극단적인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남한과 북한 주민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차별이라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인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남한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과 차이를 극복하고 '남한 주민화'되는 것이 남한에 온전히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10) 다만, 이병수(2014)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이 동일한 민족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자신의 출신을 감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는데(이병수, 2014: 141), 이는 이 연구의 분석과는 상이한 것이다.

필요한 소양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북한의 어투를 수정하거나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청년의 동화 전략 선택은 이주자가 차별을 경험할 때 이주한 사회에 동화되는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Montreuil & Bourhis, 2001; Lueck & Wilson, 2010; Khosravi, 2012). 또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남한의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동화를 기대한다는 연구(Choo, 2006; 김태희, 2016)를 고려할 때, 이것이 남한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선택한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차별의 결과는 경계 밖에 머무는 이방인의 삶과 경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 그리고 평범함을 꿈꾸고 경계를 넘고자 노력하며 경계 사이에서 서성이는 경계인의 삶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인 이방인¹¹⁾의 삶을 사는 북한이탈청년은 남한 주민과의 경계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을 고립하며, 경계에 적응해 갔다. 즉, 북한이탈청년이 차별을 경험한 결과 고립을 선택한 것이다. 이 유형에 대한 해석은 이질적인 사회에 적응하려 하는 이주민이 차별을 인지하면서 이주 사회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거나 이전 사회에의 선호가 더 강화된다는 선행 연구(Juang & Cookston, 2009; Yoon, Hacker, Hewitt, Abrams & Cleary, 2012; Ramos, Cassidy, Reicher & Haslam, 2016)에 근거한다. 북한이탈청년은 차별을 인식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감소하였고, 남한 사회와의 경계를 허물기보다 경계를 지키며 이방인이 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유목민의 삶을 사는 북한이탈청년은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자신의 미래에도 어느 곳에서 정착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였다. 김선희(2016)는 북한이탈주민이 신체적으로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이동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북한에 머물고 있어 온전히 적응하기 어려우며, 차별이 적응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탈영토화된 삶은 노마디즘(nomadism)적인 의미¹²⁾

11) 김성경(2014)의 연구에서는 Simmel(1971)의 이방인과 Park(1928)의 경계인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방인은 머물기는 하나 정착하지 않는 자를, 경계인은 서로 다른 두 사회에 속한다고도,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방인이나 경계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들이 접촉과 이해, 교환의 의미가 강한 “접경인(김성경, 2014: 59)”으로 재개념화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결과 북한이탈청년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유목민의 삶을 산다고 유형화하였다.

마지막 유형인 경계인¹³⁾은 평범함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를 넘기 위해 경계에서 서성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경계를 넘고자 노력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큰 장벽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차별보다 은밀한 배제이다. 전영선(2014)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은밀한 형태, 즉, “친절 속에 감추어진 거리감,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적대감(전영선, 2014: 120)”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경계가 은밀하게 형성될수록 북한이탈주민을 자연스럽게 배제시킬 수 있게 되므로 이들의 적응에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계를 넘어오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청년은 북한 출신을 언급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남한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면서 모호하고 은밀한 경계를 넘고자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은 경계 위에서 언젠가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점에 경계를 오가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병수(2014)는 이와 같은 매개적 역할의 가능성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갖는 ‘남한인’이자 ‘북한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찾기도 한다(이병수, 2014: 146-147). 그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차별을 겪으며 남한에 대한 반감을 갖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청년이 바라는 가교 역할은 남한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남한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즉,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를 서성이는 현실에서 이들은 경계 사이의 두 사회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였다.

12) 중국 조선족의 삶을 다룬 김금희의 소설 〈노마드〉에서는 이들이 중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노마드’, 즉 유목민으로 표현한 바 있다(리해연, 2017). 이 연구의 결과에서 북한이탈청년의 차별 경험에 대한 결과로 제시하는 세 유형 중 ‘유목민으로서의 삶’은 이와 같은 개념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13) 윤보영(2016)은 Park(1928, 1950)의 경계인(marginal man)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사회화의 의미를 해석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경계인은 “완벽하게 상호 침투하여 융합될 수 없는 두 별개의 집단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Park, 1928: 892)”이며, “그저 다를 뿐 아니라 적대적인 두 문화를 가진 사이에 살게 된 사람(Park, 1950: 373)”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완벽하게 다른 문화가 아니라는 점, 단순히 적대적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Park(1928, 1950)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즉, 이 연구에서 경계인은,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지만 경계를 넘지 못하고 두 집단 간에 머무르게 된 자’를 의미한다.

2.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북한이탈청년의 관점에서 차별 경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청년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남한 주민인가? 북한 주민인가?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때로는 자신을 남한 주민으로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 주민으로 남기도 하며, 때로는 남한에도 북한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르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청년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지속된다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년을 위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이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다양한 집단의 공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시민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북한이탈청년이 차별을 통해 남한에서 이방인, 유목인, 경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북한이탈청년이 남한 사회의 내집단이 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이 계층화하는 현상(Seol & Skrentny, 2009: 158-162¹⁴)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집단 내 하위 계층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이 자의가 아닌 이유로 한국 사회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하위 계층화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기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통일부, 2018b)과 같이, 남한의 전

14) 이 연구에서는 남한 사회에서의 계층화 현상을 법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국적법과 남한 주민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남한 내 조선족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남한 국적의 남한 시민에 비해 낮은 계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Seol & Skrentny, 2009).

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시민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청년의 관점에서 이들의 차별 경험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특히 ‘차별’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차별 경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중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참여자 개인의 맥락이나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현상학적 연구의 특성상 개인의 놓인 맥락의 차이보다 공통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며,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적 변형’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맥락은 이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북한에서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남한에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청년이 놓인 개인적인 특성과 맥락, 즉 남한의 이주 시점, 이주 기간,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맥락,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탈청년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201-225.
- 김선희 (2016). 북한이탈주민의 실존적 정체성에 대한 치료적 물음과 답변의 모색. **철학 실천과 상담**, 6, 133-164.
- 김성경 (2014).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탈냉전과 대량탈북시대에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위치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학연구**, 10(1), 37-70.
- 김윤나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연구**, 19(3), 139-168.
- 김태희 (2016). 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韓國行政史學誌**, 38, 2-27.
- 리해연 (2017). 김금희 소설의 노마디즘과 디아스포라연구. **인종인문학연구**, 55, 183-202.
- 송미영 (2012).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217-247.
- 송진영, 배미경 (2015). 탈북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적응 의미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2), 219-248.
- 엄태완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165-198.
- 여현철 (2015).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8(3), 325-359.
- 연합뉴스 (2018.08.15). 정부, 중재외교 본격화...중전선언 언제 가능할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815003100038/?did=1825m>에서 2018년 8월 22일 인출.
- 윤보영 (2015).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사회 과학연구**, 22(3), 187-216.
-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59-481.
- 이병수 (2014). 탈북자 가치관의 이중성과 정체성의 분화. **통일인문학**, 59, 121-150.

- 전영선 (2014).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통일 인문학**, 58, 99-126.
- 정애리, 유순화 (2014).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1), 51-75.
- 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과 적응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1(2), 157-182.
- 조영아 (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여성연구**, 89(2), 37-82.
- 통일부 (2018a). 주요사업 통계: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8.08.22. 인출.
- 통일부 (2018b).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jsp?num=175463>에서 2018.08.22. 인출.
- 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적 차별감, 남/북 공동체지지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77-100.
- Choo, H. Y. (2006).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 Society*, 20(5), 576-604.
- Juang, L. P., & Cookston, J. T. (2009).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3-4), 475-496.
- Khosravi, S. (2012). White masks/Muslim names: Immigrants and name-changing in Sweden. *Race & class*, 53(3), 65-80.
- Lueck, K., & Wilson, M. (2010). Acculturative stress in Asian immigrants: The impact of social and linguistic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1), 47-57.
- Montreuil, A., & Bourhis, R. Y. (2001). Majority acculturation orientations toward “valued” and “devalued” immigr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6), 698-719.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 Ramos, M. R., Cassidy, C., Reicher, S., & Haslam, S. A. (2016). A longitudinal

- study of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3), 401-420.
- Seol, D. H., & Skrentny, J. D.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도서출판 동녘(van Manen, 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Routledge, 1990).
- Yoon, E., Hacker, J., Hewitt, A., Abrams, M., & Cleary, S. (2012). Social connectedness, discrimination, and social status as mediators of acculturation/encultur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86.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 as perceived by North Korean refugee youth

Jung, Youngson*

This article explores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s perceived by North Korean refugee youth. Eight North Korean refugee youth who had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discriminatory experiences perceived by North Korean refugee youth in South Korea was composed of previous experiences, the experiences of and responses to discrimination, and the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They tried to establish themselves in South Korea, making use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previous experiences). Discrimination has been experienced to distinguish, draw lines, stigmatize, criticize(experiences and responses to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discrimination, they lived as strangers, nomads, and people within borders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As possible measures to alleviate these problems, educational support to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a campaign aimed at changing attitudes amongst South Korean citizens was proposed.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youth, discrimination, phenomenological study

투고일: 2018. 8. 28, 심사일: 2018. 9. 21, 심사완료일: 2018. 10. 16

* Seoul National University